

<총장 칼럼>



졸업과 새로운 시작

권호덕 총장

대학사회에서 매년 2월은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2월에 구정(舊正)이 있을 때는 그 전후로 해서 모든 학교 당국은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분주히 움직여야 되고, 졸업생들을 위한 학위수여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내주셨고 동시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졸업하는 대학원생들,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한 단계 마치는 졸업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시작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을 우연이나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즉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마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환경적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한 단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할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판단이 모여 오늘의 졸업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독일(獨逸)에서는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의 다 마쳤다 할지라도 졸업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독일에는 졸업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유학생들이 공부는 시작했지만 졸업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이 구비되지 못하여 고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것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들의 희생이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역의 앞길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꽃밭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작컨대 수많은 난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탈선하는 수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목사직분은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反)기독교 세력들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유린하고 이슬람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면 참으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들만이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 하나로 한걸음씩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 ...

졸업이라는 것은 마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목회의 기초를 배웠으니 다시 계속해서 공부하고 갈고닦아서 스스로 성장해야 될 것을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한국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다가 복음으로 시대정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뜻도, 자기들의 사명도 인식하지 못하고 소위 사역에 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간 배운 과목의 참고서적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연구하는 자세를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받고 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의 문제는 기도가 없거나 적은데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별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마술신앙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지도자 내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대학의 졸업식



미국대학교 졸업식



미국대학교 졸업식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식



옥스퍼드 대학교 인장



케임브릿지 대학교 인장



독일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본관 광장



옥스퍼드대학교 졸업식



독일대학 외국학생 졸업식 일부

2016년 2월 16일 11시에 본교단 소속 교회인 대천교회(강철목사 담임)에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나라와 교계소식>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 6000원 불과 ... 공단 폐쇄로 노예노동(奴隸勞動)서 해방된 것”

탈북자 김태산씨가 전하는 개성공단의 현실

입력 2016-02-16 04:03



개성공단에서 일해 온 북한 근로자가 받은 월급이 6000원에 불과해 생계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북한 경공업성 책임지도원 출신 탈북자 김태산(64)씨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련 세미나에서 “남측 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직 노동자에게 80달러를 지급했지만 북한 정부는 달러를 모두 회수하고 노동자 1인당 북한 돈으로 6000원을 줬다”고 밝혔다.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150달러지만 북한 정부가 절반 정도를 사회보장 등 명목으로 착취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역시 모두 가로챈 뒤 북한 돈 6000원만 지급해 왔다는 의미다.

개성공단 전경

그는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파는 쌀이 kg당 5000원에 달해 월급으로는 가족이 먹을 쌀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개성공단 월급으로는 가족은커녕 혼자 살기도 턱없이 부족한 정도”라며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을 ‘살려주는 곳’이 아닌 5만4000여명 노동자들의 노예노동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 월급은 간식으로 나왔던 초코파이 가격만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노동자에게는 1인당 하루 2~4개의 초코파이가 지급됐다. 연장·야간 근무를 할 경우 보충 지급되는 걸 합하면 한 달에 100여개가 나왔다”며 “북한 장마당에 초코파이를 내다 팔면 개당 300~500원을 받을 수 있어 월급의 몇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 대신 북한이 생산한 경단설기로 대체해 끊겼었다고 전했다. 경단설기 등은 입주기업을 북측으로부터 구입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정부는 이런 간식 구입비 등도 북한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북한기업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의 노동자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에서 해방되고 북한 독재자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자금줄이 끊어진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도 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에 설립됐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및 재중 합영 합작 회사들 역시 사업 시작 10여년 만인 1990년대 북한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에 폐쇄됐다고 전했다. 당시 각종 설비와 원자재, 투자금 등도 모두 ‘몰수’된 채 쫓겨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성공단 자금이 연 1억5000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다른 중요 부분으로 할당된 달러를 충당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연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의 인민경제대학을 마치고 경공업성에서 근무했다. 북한과 체코가 합작한 ‘조선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의 북측 사장을 지내다 2002년 가족과 함께 망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주기철 목사 삶 통해 이 시대에 믿음 본질 묻는다... 영화 ‘일사각오’ 내달 17일 개봉

작년 관심 모은 KBS 성탄 다큐, 영화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

입력 2016-02-15 18:49 수정 2016-02-15 20:24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영화 ‘일사각오’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출연배우, 영화 제작 관계자들이 활짝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지형(주기철 목사 역), 권혁만 감독, 설지윤(사모 역), 윤기영 주기철기념사업회 이사, 최원(막내아들 주광조 역), 소강석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강민석 선임기자

“누가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一死覺悟)일 뿐이니라.”

일제의 총칼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고(故) 주기철

(1897~1944) 목사의 신앙과 삶이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영화 '일사각오' 기자회견에서 권혁만 감독은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순교자인 주 목사가 47세 나이에 옥사하며 남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네 글자 '일사각오'"라며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보다 더 참혹했던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일제의 권력에 맞섰던 주 목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했다.

'일사각오'는 지난해 KBS1 TV의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일사각오 주기철'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난해 방영 당시 서울과 수도권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집계) 9.15%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권 감독은 "57분짜리 다큐드라마를 115분짜리 영화로 다시 제작하면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했다"며 "주 목사의 순교 당시 13세 아들의 눈으로 본 '인간 주기철'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민족사적인 의미 등 영화에서 최초로 알려지는 내용도 감동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주기철기념사업회 이사는 "주 목사님의 숭고한 저항이 조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적 장면임을 국민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영화 '일사각오'가 물질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연을 맡은 배우 이지형(주기철 목사 역) 설지윤(오정모 사모 역) 최원(막내아들 주광조 역)이 참석했다. 영화 '일사각오'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홀에서 언론·방송계와 기독교계 주요 인사, 주기철기념사업회, 일반인 등을 초청해 시사회를 가진 뒤 다음달 17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된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군대 내 동성애합법화 반대’ 기도회 열어

예장대신, 동성 간 성행위 금지 군형법 현재에
합헌결정 촉구

입력 2016-02-15 18:50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박종근 목사)은 15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박종근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허물어뜨려 동성애라는 죄까지 지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가 성적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강대국이 범죄행위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나서서 그것을 꼭 수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도덕적인 범죄행위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회 임원과 한남노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군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은 군기문란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군 동성애 처벌법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중보 기도했으며, 군형법 합헌 결정을 바라는 1161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2002년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정결한 사람과 부정(不淨)한 사람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11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를 언급했고, 본장에서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규례를 언급한다. 특히 출산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얼마 동안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가?

남아를 출산한 경우에 7일,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 14일 부정하다(2,5절). 산모는 이 기간에 남편과 친구들과도 별거해야 하고, 심지어 시중드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시 51:5).

3.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취급한 까닭은?

첫째, 출산 자체를 죄악시하여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S. H. Kellogg). 출산을 통하여 죄를 번식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출산 자체를 반드시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강조한다(시 127:3-5; 128:3-4).

둘째, 출산한 여인의 부정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G. C. Aalders). 하와가 범죄함으로 출산의 고통을 받은 것처럼(창 3:16), 범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은 저주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이 부정하다고 본다. 물론 하와의 최초 출산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동시에 출산 자체가 축복이란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셋째, 해산한 여인의 신체가 파괴되어 산혈을 흘림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견해이다(Keil & Delitzsch). 같은 이유로 레위기는 산모처럼 시체와 문둥병을 불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레 11:28,39; 12:1-5; 13-15장).

본문에 "...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4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셋째 견해가 산모의 부정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2절)라는 설명도 그 원이 산혈에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4. 남자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도록 했다(3절).

그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예식이다.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8일째에 할례를 시행했다. 첫 번째 할례의 언약을 시행한

때는 아브라함의 99세, 이스마엘 13세였다(창 17:9-14, 24-25).

둘째, 할례의 의미는 (1)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고, (2)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3)그들에게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4)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셋째, 언약을 "맺다"(히, 카라트)는 히브리어의 뜻은 "베다, 끊다, 자르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조건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때에 할례의 언약을 맺은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롬 4:17-22).

넷째, 할례의식은 신약시대에 세례의식을 예표한다(골 2:11-12).

5. 여아를 낳은 산모가 두 이레 동안 부정한 까닭은 무엇인가?(5절)

남아보다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 배나 부정하다고 본 까닭은 원죄에 대한 여자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이 세상에 받는 죄책의 고통은 여자 쪽이 더욱 특별하다(창 3:16). 바울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딤후 2:14)고 주장한다. 이 규례는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죄악의 근원을 깨닫게 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려는 의도이다(딤후 2:11-15; 고전 14:34-35).

6. 산모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찬 후에 지켜야 할 규례는 무엇인가?(6-8절)

첫째, 정결기간이 찼다고 해서 산모의 부정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았다. 인간의 부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 해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의식적 제사를 드려야 했다(6절).

둘째, 정결기간이 찬 산모는 먼저 번제를 드려야 했다. 형편에 따라서 일년 된 어린양의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해산의 위험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사이다.

셋째, 정결기간이 찬 산모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난 산비둘기를 드렸다. 감사예물은 빈부차를 인정했지만, 속죄제는 빈부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기간이 찬 후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눅 2:22-24).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갈 4:4-5).

넷째, 구약의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었다. 바울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

으리라”(딤후 2:15)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시 51:16-17).

<신앙시인의 수필>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달포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르신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하다보니 그 광경은, 전동차 안에서 경로석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70세 어르신이 60대 어르신께 막말을 하여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갑자기 울컥, 서글퍼졌습니다.

두 분이 다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사실 서 있을 만한 기력만 있으면 어느 누가 경로석에 앉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스스로 노인임을 자인하는 일인 걸 아실 텐데,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은 서로 우기셨나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편집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 날 방송된 부분만 보면 그 두 분은 그랬습니다. 70세 어르신은 나이를 내세우셨고, 60대 어르신은 자신이 오늘 이 나라를 있게 한 세대라는 점을 내세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은 마땅히 경로석에 앉을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한 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꼭 그래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곳이든, 어떤 모임이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어느 곳이나 먼저 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자들도 있습

니다. 교회와 가정에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 학교의 선배, 어떤 분야의 전문가, 모두 역사를 내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된 자들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성장한 사람이 내려라하는 자리에 섰을 때,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패륜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먼저 된 자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예의와 겸손을 가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먼저 된 분들은 나중 된 자들을 존중합니다.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습니다.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상생(相生)이요, 소통(疏通)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공자도 그 제자 자공에게 가르쳤습니다. “告諸往 而知來者.”[과거를 알려주니 미래를 아는구나. 즉, 과거를 보고 미래를 알아야 한다.], “不患 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하물며! 하물며. □

<사도행전 강해>(9)



바울의 회심과 소명⁽¹⁾

장석조 교수

(Ph.D. 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사도행전 9장을 주석하거나 설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9장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에버츠(J.M. Everts)와 리우스캄스(J. Rius-Camps)는 9장이 회심의 문맥(8-11장)에 놓여 있기에 바울의 회심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9장의 다메섹 사건은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인들의 대중회심과 이디오피아인

의 개인회심에 이어서 베드로에 의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중심부로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직접 성취된 바울의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 직후 곧바로 예수님이 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다메섹사건은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소명을 명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9장을 상세히 주석해보자. 첫 문단을 시작하는 1절 ‘~O de. Sau/loj’(사울)의 정관사와 ‘e;ti’(여전히)는 사울이 예루살렘교회를 크게 핍박하던 핍박의 배경을 상기시키며 사울과 그의 핍박 주제(8.1나-8.3)를 다시 도입하는 표현이다(9.1-2). 누가는 사울과 주의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가 ‘주의 제자들’(1절)을 ‘그 도를 좇는 사람’(2절)로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사 40.9(눅 3.4)을 상기시키는 것도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을 체포하여 끌어들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갈 권위(공문)를 청하는 의도적인 공식적 핍박을 준비하는 죄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핍박의 주제는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되는 주제인데 다메섹사건의 배경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9.1, 13, 21 22.4,5, 19; 26.9-11). 누가는 사울과 주의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관찰하면서 사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인 공식적 핍박의 주체가 되어 회심하여 주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음을 함축한다. 사울이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눅1.76; 3.10; 5.1, 32; 행2.38)을 강조하는 누가의 신학적 배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핍박 주제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바울의 회심과 그 은혜성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특별히 형식적 구조를 볼 때, 사울이 ‘그 도를 좇는 사람’을 ‘잡아 오려 함’(2절, avga,ghl)과 사울이 자신의 동행자들에 의해 ‘(이)끌’리는 것(8절, ceiragwgou/ntej)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공적 권세를 가진 자의 무력화됨도 사울의 회심과 그 은혜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문단에서 누가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내러티브를 가속화하여 어느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된 장면을 보

여준다. 이것은 다메섹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한다. ‘갑자기’는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다 도착할 즈음과 어울려 긴박감을 표현해준다. 하늘의 빛(fw/j evk tou/ ouvranou)은 3회 반복되는 공통요소인데(9.3; 22.6; 26.13), ‘신적인 존재 양태’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남을 가리킨다. 누가는 부활/승천하신 주님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사울에게 초점을 맞춘다. 주의 제자들을 향한 대 핍박의 공세를 펼치던 사울은 그보다 더 강한 하늘의 빛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사울은 하늘의 소리(9.4; 22.7; 26.14)도 듣고 자신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책망을 듣는다. 이것은 핍박자 사울에게 놀람과 두려움의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울이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첫 만남에서 회개했거나 믿었다는 표현도 없다. 사울은 단지 질문 ‘ti,j ei=(ku,rieÈ’(5절)으로 하늘의 빛과 소리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가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책망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표현하지 않은 것은 회개할 자격도 없다는 함축의미를 보여준다. 하지만 주님의 질문(9.4나)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자신이 바로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이시다는 기독교적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누가행전의 병행구조(눅 9.18-20)의 빛에서 이해할 때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계시하신 사건이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임을 암시한다.



동시에 누가는 사울이 이 회심시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플롯을 전개할 전망적 관점에서 해석하길 기대한다(행16.31; 20.21). 5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한다면, ‘행할 것’(9.6)은 아직 명시적으로 소명과 연결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가리킨다(눅 3.3; 행 2.37; 26.18). 행동의 변화는 회개의 열매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네게 이를 자’도 다메섹교회 안에서 사울의 회심을 인증할 아나니아를 예고하는 기능을 하고 사울의 소명은 아직 암시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호에서는 바울의 회심이 소명으로 연결되는 문단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2)

삼위일체론 강의(4)

이동영 교수(Dr. theol. 조직신학)

삼위일체교리의 동. 서방적 유형

공교회의 교의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통 삼위일체교리는 성경의 하나님 증언에 일치하지 않는 이론적 제안들을 저지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리는 초대교회가 구원의 경험 속에서 체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사변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정립되었다기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존하고 찬양(송영)하기 위하여 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교리의 내면을 간통하는 신학적 정신은 ‘사변’(Spekulation)이 아니라 ‘송영’(Doxologie)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교리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니케아 공의회’(Konzil von Nicaea, 325)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Konzil von Konstantinopel, 381)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삼위일체교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교회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방과 동방은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대동소이한 이해방식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등장 이후 동방과 서방은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제각기 다른 이해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리하게 통찰해낸 인물은 19세기 프랑스의 로마교회의 교부학자였던 테오도르 드 레농(Th. De Regon)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이전의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론

아우구스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즉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오리게네스(Origenes),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갑파도키아의 교부들(Kappadokische Kirchenväter) 그리고 힐리라우스(Hillarius)에 이르기까지 동, 서방 교부들 사이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동방과 서방의 교부들은 모두 세 위격들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세 위격들의 ‘하나 됨’(Einigkeit)을 ‘일체’(unitas)로 파악했습니다. 서방의 교부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세 위격들을 먼저 구분하고 그 세 위격들의 하나 됨을 일체라고 가르쳤습니다(참고. Tertullianus, Adv. Prax, 13). 서방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 즉 ‘세 위

격들’(tres personae)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세 위격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실체’(una substantia)로 나아가는 방식은 후에 갑파도키아의 세 명의 교부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동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주도적 이해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대 동. 서방의 교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체성을 ‘한 분’(unus)으로 파악하지 않고, 세 위격들의 ‘하나 됨’(Einigkeit) 또는 ‘통일성’(Einheit)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그러나 서방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이전의 삼위일체론 속에서 종속론(Subordinationismus)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동. 서방의 교부들은 삼위내에서 ‘신성의 근원’(fons deitatis)을 아버지, 곧 성부의 위격으로 이해했고, 신성의 근원(원천)인 성부로부터 성자의 영원한 ‘출생’(generatio)과 성령의 영원한 ‘발출’(spiratio)를 가르침으로써, 신성의 근원과 관련하여 성자와 성령에 대한 성부의 유일한 모나르키아(Monarchia), 즉 유일한 전제 군주적 지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 즉 세 위격들의 내재적 구성과 관련한 이러한 동방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종속론의 경향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시작하여 세 위격들의 구분을 설명함으로써, 삼위일체교리와 관련하여 종속론의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의 이해방식, 즉 한 분 하나님의 본질 내지는 실체(substantia)로부터 시작하여 세 위격들의 구분을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서방 안에서 삼위일체교리의 주도적 이해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동방과 서방의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방식의 차이

1. 동방의 삼위일체론: Τρεις υποστάσεις εστιν εν, ουκ εις! (세 위격들은 하나다, 한 분이 아니라!)

세 위격들(Τρεις υποστάσεις; Tres substantiae) – 하나 됨[일치](Μία ουσια: Ev; Unum)

상기의 공식은 동방의 위대한 교부들인 갑파도키아의 세 명의 교부들, 즉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Basilius von Caesarea),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 von Nyssa), 나치안츠의 그레고리우스(Gregor von Nazianz)에 의해서 정교한 형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경륜’(oikonomia salutis)으로부터 출발하여, 세 위격들이 어떻게 하나 됨을 이루는가를 해명하

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동방 삼위일체교리의 주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방의 삼위일체의 이해방식을 서방은 종속론(der Subordinationismus)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파도키아의 교부들로 대변되는 동방의 삼위일체론은 신성의 근원을 서방처럼 한 분 하나님의 본질에다가 설정하지 않고, 성부의 위격에다가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동방교부들에 따르면 성부는 신성의 ‘근원이 없는 근원’(ursprunglose Ursprung)이시며, 그러기에 비출생성(αγεννησί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시며(ewige generatio),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출(ewige spiratio)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내적 구성에 관한 동방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부로부터의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의 내적 구성에 있어서 성부의 전제 군주적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부에 대한 성자와 성령의 종속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동방의 삼위일체의 이해방식 속에서 종속론의 위험을 보았던 것입니다.

2. 서방의 삼위일체론: Deus est unus, non unum!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가 아니다)

una substantia(하나의 실체) - tres personae(세 위격들)

상기의 공식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의해서 개진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에 의해서 정교하게 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서방 삼위일체 이해의 주도적 흐름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격들로 존재하는가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서방 삼위일체교리의 주도적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유일 본질이야말로 세 위격들이 공동으로 근거하고 있는 신성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삼위일체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 위격들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세 위격들에 선행합니다. 그러다보니 너무나 종종 삼위, 즉 세 위격들은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의 ‘모두스’(modus), 즉 ‘양태’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T. de Regnon, Etudes de theologie positive sur la Sante Trinite, Paris 1893, 365: “The Latins think of personality as a mode of nature”[Zitat nach Paul M. Collins, Trinitarian Theology: West and East, Karl Barth and the Cappadocian Fathers and John Zizioulas, 117]). 그러다 보니 서방의 삼위일체의

이해방식 속에서 동방은 양태론(Modalismus)의 위험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서방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삼위일체론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방식 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동방적인 종속론의 위험성을 피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하여 양태론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분 하나님의 본질 내지는 실체로부터 출발하여 삼위의 구별을 인간학적-심리학적 유비와 더불어 설명했습니다. 즉, 그는 인간의 영혼의 삼중적 구조를 ‘기억’(memoria), ‘지성’(intellectus), ‘의지’(voluntas)로 구분하고, 성부를 기억으로, 성자를 지성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로 묘사했습니다(Augustinus, De trinitate, 9, 12). 그래서 로마교회의 신학자 미카엘 쉬마우스(Michael Schmaus, 1897-1993)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심리학적 삼위일체론(die psychologische Trinitätslehre)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적 유비는 훗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동방과 서방 안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영혼의 삼중적 구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대입시키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설명방식은 결코 양태론을 주장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적 위험성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사변이 아니라 경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동방의 관점을 채택할 경우 양태론의 위험성은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으나, 종속론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서방의 관점을 채택할 경우 종속론의 위험성은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으나, 양태론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동방은 종속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신성의 유일한 원천을 성부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며, 서방 또한 양태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신성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교부들은 종속론과 양태론을 배격하는 일에 모두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교부들은 종속론에 대항하여 세 위격들 ‘상호간의 내주’(circuminsessio) 내지는 ‘상호간의 침투’(circumincessio)를 강조하는 페리코레시스 교리(Perichoresis-Lehre)를 굳건히 견지했으며, 서방의 교부들은 양태론에 대항하여 세 위격들 각자의 ‘전유’(appropriatio)를 강조하는 아프로프리아치오 교리(Appropriationslehre)를 굳건히 견지했던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은 삼위일체교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사변하고 쟁론하고자 했다가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존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을 논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변

이 아니라 찬양(송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P. Melanchthon)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이사야서 강해>(5)



“아하스의 불신”(7:1~9:7)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를 담고 있다. 6장에서 이사야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7~12장은 실제 역사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 온 사건(7:1~2)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7~12장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원(7:1~9:7)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는 아하스의 불신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신실한 남은 자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둘째 단원(9:8~10:4)은 아하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셋째 단원(10:5~12:6)에서 선지자는 심판 이후에 있을 궁극적 구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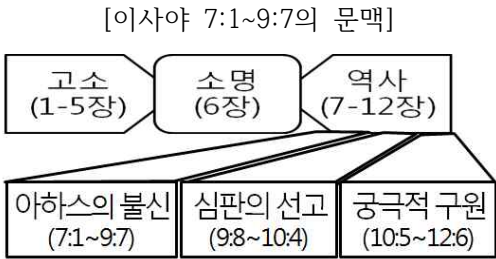
7:1~9:7은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먼저 7:1~25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참조 7:3). 여기에는 아하스의 불신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 그 다음에 8:1~9:7은 이사야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며 구원을 약속한다.

1. 아하스에게 주신 신탁(7:1~25)

1~2절은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간략하게 묘사한다.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국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주전 745년에 등극한 앗수르 왕 디

글랏 빌레셀 3세는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 때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모반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베가는 주변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앗수르에 항거했는데, 아하스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에 쳐들어 온 것이다. 3~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가 이런 전쟁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지시하셨다. 그것은 곧 두 나라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10~17절은 아하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탁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아하스는 하나



님 대신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참조 왕하 16:7~8).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아하스의 선택에 대해 질책하고 임마누엘 아기의 출생을 징조로 제시하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정도로 성장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 고 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732년에 앗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개요(이사야 7:1~9:7)

1. 아하스에게 주신 신탁(7:1~25)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1~9절)
아하스의 선택(10~17절)
불신에 대한 심판(18~25절)
2. 이사야에게 주신 신탁(8:1~9:7)
앗수르의 침공 예고(8:1~8)
믿음과 순종 권고(8:9~22)
구원의 소망(9:1~7)

다. 18~25절은 17절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하스의 불신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앗수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아기의 정체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

다. 이 징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되지만,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는 당대에 출생한 한 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출생과 성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이사야 당대의 사건들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의 탄생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사야 문맥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따져야 할 문제이다. 임마누엘의 정체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추론이 주목을 받아 왔다. 첫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로 보는 것이다. 그는 다윗 왕조의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표로서 제시될 만 하다. 하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재위 연대를 계산해보면 이때 이미 히스기야는 태어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사야가 한 처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 보는 입장이다. 8장에서 이사야는 아내를 취하고 그에게서 아들이 출생했다(8:3~4). 이 아이의 성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사야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8:18).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2. 이사야에게 주신 신탁(8:1~9:7) (다음 호에 계속)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지상(紙上)설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마 6:19-34

김준범 목사

(양의문교회 담임, 고려개혁신학연구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시 57:2)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빌 2:12-13). 모

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복과 구원이 되도록 섭리하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하지도 않고 꼬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진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와 통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구원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의 답).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전능의 보존과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움직임, 우리의 건강과 호흡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가느다란 실날같아서 끊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의 섭리로 이 연약한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우연히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고, 바로의 관원들이 자기를 외면했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창 45:8).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섭리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전히 모든 것을 사용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의 밝은 면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만물을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그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라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전히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 때문에, 그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며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들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다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풍년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부뿐만 아니라 흉년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도 다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특별한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전능의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의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다채롭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광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노병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자연환경의 변화들, 사회와 국가의 흥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톱니바퀴처럼 다 정확하게 맞물려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놀라운 섭리 교리를 굳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며, 어떤 일과 형편을 만나든지 이런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 6:33 참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확장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힘쓰며 나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롬 8:32 참조).

총 129문답으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문답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제26문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문답입니다. 제26문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의 열 두 조항들 중 제일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신앙고백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제26문의 답은 수많은 개혁주의 신앙고백들과 요리문답들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문답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써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

여 전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3)

최흥식 교수
(Ph.D., 신약학)
(횡설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골로새서 1:9-20 주석 계속(2)

14절: “그 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을 지칭한다. “그리스도 안”은 바울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인데 크게 세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1)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발생하는 영역; 2) 구원의 유익들이 존재하는 영역; 3) 신자가 존재하는 영역. 이 구가 본 절에서는 둘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3:24; 엡 1:7).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구속”은 죄수나 포로를 종살이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 구속은 흑암(죄, 사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출 8:23)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다(고전 6:20; 7:23; 엡 1:7; 딤후 2:6; 벧전 1:18). 구속이 죄 사함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된 성도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다.

15절: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므로(요 4:24) 보이지 않는 분이다(롬 1:20; 딤후 1:17; 히 11:27).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Christophany)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후 4:4, 6 참조). 그 사상적 배경은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헬라적 유대주의 사상(특히 필로의 사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헬라어 - prototokos)라는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창조물 보다 선재하며 창조물 위에서 군림하는 분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선재(pre-existence of Christ - 요 1:1-2; 8:58 참조)와 초월성이 암시되어 있다.

16절: 헬라어 en auto를 “그에게” 또는 “그 안에서” 보다는 “그에 의하여”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그로 말미암아” - 16절 후반절 참조). 여기서 창조사역의 사역자로 묘사된 유대주의의 지혜 전통을 다시 발견 할 수 있다(시 104:24; 잠 3:19).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주의 별들과 천상의 영적 존재들, 땅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들과 인간을 지칭한다. 이 둘을 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보이는 물질적 존재들로 묘사된다. “보좌”와 “주관”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세력들을 지칭한다. 이 천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되었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 위에 수월하신 분이시며 만물 창조의 사역자(agent)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전에는 예수님의 선재와 창조주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바울(고전 8:6), 요한(요 1:1-3),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히 1:2) 이 진리를 잘 이해하였다.

17절: 본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그분이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sustainer of the universe)임을 보여준다. “먼저”는 시간상의 우선성 또는 지위상의 수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전자가 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의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에베소서 1:10의 주제).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유지하신다(히 1:3 참조).



우주의 지배자 그리스도, 1190년 경,
모자이크, 몬레알레 성당, 시칠리아

1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로 비유된다. 바울은 교회를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묘사한다(고전 12:12-31; 롬 12:5; 엡 1:23 참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고전 1:2; 11:16, 22; 15:9; 살전 2:14)이며 다양한 부분으로 형성된 몸의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전 12:12; 골 3:15).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그분이 교회의 주가 되시어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 것은 그분이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시어 몸 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한다(엡 4:16 참조). 만물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인 각 지역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주님이시다. “근본”은 시작과 기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고전 15:20, 23 참조)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19절: 본 절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말한다. 본 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임이 확실하다. “모든 충만”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즉 신성을 함축한 말이다(렘 23:24 참조). 골로새서 2:9절에 의하면 “모든 충만”이 신성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거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역사되었음을 의미한다.

20절: 본 절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그분과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만물이 어둠의 세력(골 1:13) 하에 있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된 온 우주와 화해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골 2:15) 온 우주와 화평을 이루신다. 십자가의 피가 우주적 화목을 가져오는 매개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수 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골 1:21-22; 롬 5:10; 고후 5:19)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든다(엡 2:14-15). 나아가서 십자가는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그 권세 하에 눌러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해방과 구속을 가져다준다(롬 8:19-22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 역사의 목적은 악의 세력의 영향 하에 있는 인간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창조의 원래의 모습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선교신학>



2. 영적 전쟁의 약점(弱點)

배춘섭 교수
(서울성경대, 선교학 Ph.D.)

지금까지 SLSW의 장점은 많은 지지자들과 옹호자들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SW은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SLSW은 어떤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상황 중심의 본문해석

성경해석학에서 성경본문은 보편적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본문은 다른 상황 속에 처한 독자들에게 의해 다양한 성경해석의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달리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¹⁾ 저스틴 윙(Justin S.

1) Bernard C. Lategan, “Scholar and Ordinary Reader:

Ukpong)은 자문화적 성경해석학(inculturation biblical hermeneutic)을 정의하면서, 의식적으로 성경 해석자가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성경본문을 자민족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해석하는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문화적이고 상황중심의 본문해석은 성경해석학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로 논의된다.²⁾

무엇보다도 SLSW의 가장 큰 약점은 성경이 SLSW의 방법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SLSW의 성경해석학이 성경의 역사적 본문보다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주장은 SLSW 일부 신학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더욱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13~20은 “지역귀신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SLSW의 신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성경본문이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단10:13-14 개역개정)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알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단10:20 개역개정)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제압하는 그림



이상의 본문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가 현현하여 다니엘의 기도 응답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바사 왕국의 군주(שַׂרְמַלְכָּה)가 과연 지역귀신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질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천사가 21일간 바사 왕국의 군주, 즉 페르시아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로 인해 천사의 발이 묶였다고 주장한다.³⁾ 만약 그렇다면 하

나님의 통치는 유대에서 성전건축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닌 권한은 바사 왕국의 군주(שַׂרְמַלְכָּה)에 저지를 당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은 지역신 개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존 칼빈(J. Calvin)은 실제 군주(שַׂרְמַלְכָּה)가 뜻하는 바가 역사적 실제성을 띤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주장한다.⁴⁾ 팀 메도우크라프트(Tim Meadowcroft)도 군주(שַׂרְמַלְכָּה)를 언급하면서 “이 용어는 페르시아의 왕과 헬라의 왕이 실제 인간이었다는 가정을 분명히 지적한다. 반면 미가엘은 초월적인 존재(Non-earthly Being)이다”라고 주장한다.⁵⁾ 이런 점에서 다니엘 10장 13절의 바사 왕국의 군주(שַׂרְמַלְכָּה)와 20절의 헬라의 군주(שַׂרְמַלְכָּה)는 영적인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⁶⁾ 오히려 군주(שַׂרְמַלְכָּה)는 사마리아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성전건축을 방해했던 그 당시의 실제 인간이었던 군왕 캄비세스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니엘 10장은 천사와 지역귀신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 하지 못한다. 당연히 영적 전쟁을 위해 당위적으로 ‘영적 도해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 10장을 언급하며 SLSW를 주장하는 성경해석은 통시적 접근(diachronic approach)의 주석방법이 배제된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깨알아야 한다.⁷⁾ 오히려 SLSW의 주석방법은 공시적 접근(synchronic approach)만의 미흡한 주석방법을 취합하고, 동시에 독자가 의도하는 대로 미리 자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독자중심적 방법론의 오류로 평가할 수 있겠다.

Warner, “Dealing with Territorial Spirits,” in *Engaging the Enemy*. (Ventura, CA: Regal, 1991), 52.

4) J. Calvin, *A Commentary on Daniel vol 2*, trans. T. Myers (London: Banner of Truth, 1966), 252.

5) Tim Meadowcroft, “Who are the Princes of Persia and Greece (Daniel 10)? Pointers Towards the Danielle Vision of Earth and Heave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9/1(2004): 102.

6) 셉트와진트(LXX)는 페르시아와 헬라의 군장(שַׂרְמַלְכָּה)을 ‘στρατηγός’로 번역한 반면, 미가엘을 뜻하는 군장(שַׂרְמַלְכָּה)은 ‘ἀρχων’으로 번역했다. 다시 말해, LXX에서는 마소라텍스트(MT)의 군장(שַׂרְמַלְכָּה)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신학적 해석을 첨가했다. 여기서 ‘στρατηγός’는 성경에서 주로 인물을 묘사하거나 상징하는데 쓰였고, ‘ἀρχων’은 대개 영적이며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

7) Robert. A. Guelich, “Spiritual Warfare: Jesus, Paul, and Peretti,” *PNEUMA* 13/1 (1991): 63.

More Than A Simple Interface,” *Semeia* 73 (1996): 254.

2) Justin S. Ukpong, “The Parable of the Shrewd Manager (Luke 16:1-13): An Essay in Inculturation Biblical Hermeneutic,” *Semeia* 73 (1996): 190.

3) Peter Wagner, *Confronting the Powers*, 91; Gary Kinnaman, *Overcoming the Domination of Darkness* (Grand Rapids: Chosen Books, 1990), 54; Timothy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1월 4일(월)~2월 2일(화) 2. 전형일시 2월 4일(목) 오전 10시 3.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학', '성경의 경영학'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 4. 평생교육원의 특징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마다 <u>1개 자격증</u>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u>구역장 교육</u>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u>설교 향상</u>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